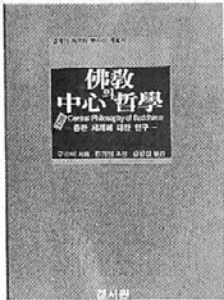


불교의 중심철학

무르띠 지음

2천5백년의 역사를 통해 이룩된 온갖 불교사상은 모두 중관사상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불교와 아비달마불교를 수렴시켜 그 핵심을 갈파한 것이 바로 중관사상이며, 대승 불교 사상들도 중관이라는 불교의 핵이 있었기에 그 다 양한 전개가 가능했다. <불교의 중심철학>은 중관 불교의 개설서로, '무이한 허



서구인 불교관 뒤바꾼 중관개론서

무주의적인 종교'라는 서구인의 불교관을 뒤바꿔놓은 중요한 저작이다. 즉 이 책이 인하여 '중관사상은 서양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체계보다도 완벽한 변증법적이고 절대론적인 체계'라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중관철학의 기원과 발달을, 중심이 되는 2부에서는 중관변증법의 구조를 비롯 철학체계로서의 중관철학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부에서는 중관학과 서양철학의 변증법 체계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김성철 옮김. (경서원, 1만1천원)

책의 제의

답사 여행의 길잡이 '충남' 목수현 외 지음

답사여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여행이 감성의 과소비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에서는 전국을 행정구역과 문화권에 따라 구분해 충실한 답사정보와 다양한 여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충남>은 전북 경주 관동에

9개 코스로 나눠 유적등 안내

이은 이 시리즈의 네번째 권. <충남>편은 전체를 9개 코스로 나누어 그 지역의 문화 유적에 대한 소개와 답사정보를 전하고 있다. 각 코스는 하루 정도의 시간 또는 1박, 2박의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다. 책머리에는 '충남지역 답사

여행의 길잡이'를 실어 전체적인 주제와 특색을 파악하도록 했으며, 말미에는 특징으로 '일본문화의 원류로서 백제문화'를 붙여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문 앞에는 교통·숙식 등 여행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실었다. <불매,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책으로 보는 탕화·조각의 세계

'감로탱'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동시 출간

한국 특유의 불화인 감로탱(甘露帳)을 모아 해설한 <감로탱>(예경)과 전국에 산재한 불교조각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한 <한국불교조각의 흐름>(대원사)이 동시 출간된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강우방씨와 학예연구사 김승희씨가 공동집필한 <감로탱>은 '잊혀진 불화의 장르 복원'이란 의미를 지닌다. 국내는 물론 일본 및 프랑스 기예박물관에 소장된 50여점의 감로탱을 318컷의 컬러도판에 담아 감로탱의 발생배경, 미술사적 특징, 감로탱에 나타난 정신세계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16세기말~20세기초까지 번성했던 감로탱은 사자(死者)의 극락왕생을 비는 수목재나 사십구재 때 쓰이는 의례용 불화로, 모든 중생의 영혼을 제도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의 구조는 대체로 불보살이 있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상단과 현실세계 및 지옥을 그린 중·하단으로 나뉜다. 저자 강우방씨는 "하단, 즉 육계부분에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즐거움의 순간들이 예술적 형상을 받아 유형화되어 있다"며 "효도와 조상숭배사상에서 우러난, 우리민족 정서에 바탕을 둔 한국불교예술의 상징"이라고 감로탱을 설명했다. <감로탱>은 1천부 한정발행되며, 이 가운데 2백부는 영국의 동양학사적 공급회사를 통해 세계각국의 주요 도서관에 보급된다. <한국불교조각의 흐름>은 불교예술이 극에 달했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기의 불교조각을

양식의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기쉬운 동양 불교조각사의 성격과 특징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도 강우방씨이다. 제1부 종교미술론에서는 자신이 불교와 불교미술을 보는 관점과 방법을 불상미술과 불신관(佛身觀)을 통해 밝힌다. 제2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및 통일신라의 불교조각들을 예시하면서 미술사적 의미를 규명한다. 특히 불상들의 조형원리와 신앙적 배경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박물관에서 전시된 죽은 불상'들을 생명이 충만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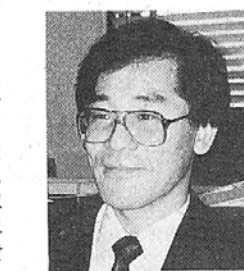


정성은 기자

불서와 함께 한 어느 여름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우려나, 여름을 날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얼마만큼이나 해두어야 할까, 철쭉이 한창 어우러지던 때부터 일찌감치 걱정을 해두었다. 모두들 생생히 기억하듯이, 작년 여름의 더위가 참 혹독했기 때문이다. 닥치면 다 그럭저럭 견디게 마련이건만, 공연한 걱정이야.

어떤 교수님 말씀이 放學이라 해도 매년 '放'은 못하고 여전히 '學'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투에 불평보다는 보람의 느낌이 배어 있다. 書生(유학도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들은 대개 모두들 동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스님네들은 安穩에 들어 버림(放)으로써 여름의 공부(學)를 하는데, 학생들은 밀린 공부를 다시 잡아 放으로 삼으니 묘한 대칭을 보인다.



윤원철

증생에게는 그야말로 수수께끼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열반과 불성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설이 나오게 마련이다. 원효대사는 주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가지 기종의 설을 소개하고는, 중도 불의의 -심의 자리에 선 헤안으로 그것들을 일일이 論破하고 아울러 包攝하여 -昧로 수렴시키는 호호탕탕한 화쟁의 논리를 전개한다. 중도 불의의 세계는 말로 할 수 없건만 말로 따져야만 하는 자리에서 원효대사는 '말로 써 말을 여의는'(因言遺言) 그런 말을 뿌려 댄건만, 천상 書生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냥 읽지만 말고 뉘를 남기는 취지에서 <열반중요>의 한글 번역과 주석을 내가 담당하고 그 친구는 영어로 번역하고 주석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게 커다란 한 보따리 짐으로 남았

'열반중요' 읽으며 화쟁의 논리에 폭 빠져 한글번역·주석달며 참으로 행복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신나게 했을까? <열반중요>는 수상 록도 아니고 설화집도 아니며 제목 그대로 열반경의 종지를 해설하는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그다지 신이 날 거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유명한 원효대사의 화쟁의 논리가 구체적인 論題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

서 찾는다. 열반은 끊고 가라 앉히고 여의고 앉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늘(常) 변함없이(不變易) 밝은 빛으로 널리 비추는(光明顯照) 적극적인 경지라는 것이니, 달리 말하자면 고요함(寂)과 적극적인 비춤(照)이 함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으니 심지어는 一闍提개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종지는 모두 中道 二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으로,

다. 하지만 그 원고를 출판하는 것은 박 교수님과 그 친구, 또 내가 한꺼번에 시간을 내서 마무리 다듬어질 한 뒤에야 이루어질 일이다. 아무튼 이런 그 보따리를 나의 학생들에게 전해 줄 차례이다. 禪師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제자에게 등불을 전해 주고, 서생들은 그 동안 공부해 온 것을 공책 보따리로 제자에게 전해주는 여름이다. <서울대 교수·종교학과>

명사추천 100선 이광수 소설 '원효대사'

추원 이광수의 빼어난 소설들을 거의 다 읽었다 할 수 있는 내게, 불교를 소재로 한 인물소설로서 감명을 아직껏 깊게 आरो새겨 두고 있는 책은 <꿈>과 <이차돈의 사(死)> 그리고 <원효대사>와 같은 작품이다. 이 소설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파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이광수집>으로 묶여져 출판되고 있어 쉽게 다시금 읽을 수 있는 명작 불교소설로서 귀중한 고전이 돼 있기도 해서 좋다.

앞에 밝힌 추원의 소설들은 소설로서의 재미와 함께 유려하면서도 깊은 내용과 문장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모두 두세번씩은 푹히 읽은 책으로 기억되고 있다. 내 개인의 바람으로는 거듭 또 고요히 읽 고싶기도 한데, 그런 시간이 갖추어 질지 모르겠다. "하얀 마음 이외에 다시 다른 실재(實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만이 어리석어 그 하얀 마음을 잘 모르고 방황



정공채 (시인)

불심 가꾸는 법 깨우쳐 주고 읽을수록 올바른 삶의 기틀 세워

하는 까닭에 그 고요해야 할 바다에 파랑(波浪)이 일고 기복(起伏)이 생기며, 온갖 평화롭지 못한 생(生)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소설 <원효대사>에 내포돼 있는 원효대사의 가장 인간적인 마음의 평화로운 사상-불심은 이렇듯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대사(大師)로 추앙받고 있는 법명(法名)이 원효(元曉)인 그는 신라시대 10성인(聖人)의 한분으로 우리나라 불교인 해동종(海東宗)의 시조이기도 하다. 본성은 설(薛)씨요,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의 대학자로서 이두문(吏讀文)을 창시시킨 설총(薛聰)의 아버지이기도 한 원효대사(617~686)의 참으로 인간적이면서 고결한 대승사상은 사람이 마음대로 옮겨 사는 것이 바로 부처라 하였다. 곧 올바르게 산 사람이 부처요,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시대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삼아 번민한 일생이기도 하였다. 그는 두번째이나 당(唐)나라 유학을 꿈꿨다가 이것이 아무런 슬모도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 "하얀 마음 밖에 다른 실재(實在)는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승(大乘)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깊고도 고요하고 맑고도 평화로운 것이다. 깊고도 다시 깊어 어찌 그 모양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고요하고도 고요한 그것은 마음에 있다."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절정(絶頂)으로 그려낸 추원 이광수(李光洙)의 소설 <원효대사>는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새삼 새롭게 읽어, 사람마음의 참된 불빛을 불심으로 가꾸는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책이라고 믿는다.

책방 여시아문 (Cheokbang Yesiamun) advertisement.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a list of services like book recommendations and computer search.